

복구,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사업' 나서

연 1회 최대 5만원...광주 최초 추진 19~39세 청년 280여명 선착순 지급

광주 복구가 지역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광주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 복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구독 비용을 연 1회에 한해 최대 5만원을 지원하는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복구에 주소를 둔 19~39

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280명의 청년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복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 소프트웨어를 선정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챗GPT PLUS △한컴오피스(한컴독스 포함) △MS오피스 △어도비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등 6종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일 또는 구독 종료 기간이 2025년 1월1일 이후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가 기업, 교육기관 또는 비즈니스용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복구는 이달부터 매월 말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청년의 주소, 구입 영수증, 본인 명의 계정 확인 등 지원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 다음 달 15일 이내에 청년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복구 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구청 청년미래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복구를 만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nilbo.com



광산구, 화재예방 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맞아 진행

광주 광산구가 지난 18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화재예방과 자율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과 더불어 광주송정역 인근 시장,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안전 점검 활동도 진행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단 양성 남구, 11월까지 주민 34명 교육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 이웃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단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18일 남구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내에서 활동할 기술 봉사자 확충을 위해 '우리동네 맥가이버' 양성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구 소재 17개 동에서 손재주가 뛰어난 주민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공구 사용법은 물론 방충망 시공, 스위치·콘센트·LED 형광등 교체, 수압 조절기 수리, 안전 손잡이·문고리·가스타이머 설치, 문자물차·초인종 수리 등 다양한 생활 기술을 익히게 될 예정이다.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현장 실습도 병행한다.

남구는 이번 양성을 통해 각 동별로 전문성을 갖춘 기술 봉사자가 배치되면, 생활 속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뒤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단은 두 개 권역으로 나뉘어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권역은 양림동, 방림1·2동, 봉선1·2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5동 등 9개 동에서, 2권역은 백운1·2동, 주월1·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 8개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게 된 '우리동네 맥가이버'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투입되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앞미산에 조성된 내집앞 맨발길.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내집앞 맨발길' 시민 만족도 높인다

시민 의견 반영 맨발길 일제 정비 총 40개소 목표 4곳 추가 조성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내집앞 맨발길'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면적이 넓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내집앞 맨발길'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공원, 녹지, 등산로를 중

심으로 흙, 땅의 감촉을 직접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맨발길 36개소를 조성했다.

광산구는 최근 시민의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맨발길 전체를 점검·정비하고 있다.

특히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길을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불편 사항, 개선 건의 등을 수렴해 맨발길 주변 이물질 제거, 노면 고르기, 흙 보충, 세죽장 퇴적물 청소 등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맨발길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 지침과 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관리 분위기 조

성을 위해 맨발길에 빗자루를 비치하고, 이용률이 높은 곳은 흙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맨발길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며 "길을 이용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비 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관리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주민 건의에 따라 애초 내집앞 맨발길 조성 목표를 32개소에서 40개로 늘려,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참여단지 모집

오는 25일까지, 노후 주택 대상 공용 시설 보수 1500만원 지원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

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는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평가기준'에 따라 △준공년수 △국민주택 규모 비율 △세대수 등 정량평가와 함께 △건급성 △효과성 △필요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단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동구는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도로

와 보안등, 담장 유지보수 등 공용 시설 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5일까지 동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거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윤준명 기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서구, 25일까지 노후 주택 대상 도서구입 등 최대 450만원 지원

광주 서구는 주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등을 1곳당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며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서구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이며, 오는 23일까지 상록도서관으로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누리집 또는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학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마을 연계 홍보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서구 도서관과장은 "작은도서관은 생활 속 열린 문화공간이다"며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